

인간존재에 관한 철학적 소고

사르트르: 실존과 자유

장 영 지

목 차

- I. 서론 - A. 들어가는 말
- II. 본론 - A. 실존주의
 - A-1) 무신론적 실존주의
 - A-2) 존재
 - A-3) 기투
- B. 실존의 본질과 인간존재
 - B-1)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 B-2) 불안
 - B-3) 타인
- III. 결론 - A. 나오는 말

I. 서론

A. 들어가는 말

=> 2013년 겨울 대한민국은 '안녕들 하십니까!' 이 한마디로 들썩이고 있다. 고려대학교부터 시작된 이 대자보가 전국 대학가로 확산돼 연

■ 철학의 대중화 - 장영지 : 인간존재에 대한 철학적 소고 시르트르 : 실존과 자유

말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대학생이 이 사회의 부조리함에 대해 남의 눈치 혹은 그 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능동적으로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 주체로서 행위하고 있다. 그것이 뭐가 되었던 간에 젊은 지식인들은 행위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인들의 사회참여 즉, 이들이 양기주망의¹⁾ 주체로서 이 사회에 묻는 것은 우리 모두 아무 탈 없이 편안하냐는 거다. 고려대학생의, 아무 탈 없이 편안하십니까? 라고 묻는 그의 말에 어떻게 아무 탈 없이 편안하실 수 있느냐고 묻는 그의 말에 나는 큰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눈물이 내려는 걸 꼭 참아야 했다. 나는 이러나저러나 내 주변 사람들보다는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여, 집회에도 참석해보고 했지만, 나는 그저 깨어있는 척만 했을 뿐이었다. 단지 나의 힘든 여러 상황들을 사회와 정치의 문제로 시선을 돌려 외면하고자 했을 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멀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같이 갈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먼발치에 서서 그저 상황을 지켜보고 혼자 분노하고, 그 분노에 익숙해져 나도 모르는 순간 '그런가보다'로 상황을 받아 드렸다가, 단지 '미쳤구나, 정말 썩었구나.'로 짧게 화가 났다가 금세 잊어버렸다. 최근에 와서야 나는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기사를 파하는 나를 발견했다. 그동안 나는 그래도 의식은 있다는 자기기만에 빠져 있던 건 아닐까. 그래서 많이 창피했다. 정치문제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인 문제를, 편견과 모든 이념을 배제하고 단지 인간,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판 하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저 내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면 오히려 '특이하대'라며 공감 받지 못하는 시대가 아닌가. 어찌면 이미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너의 일'이 된지 오래인 것 같다. 고려대 대자보를 일고, 발 벗고 나서서 행

1) 이런 지식인의 사회 참여를 프랑스에서는 '양기주망(engagement)'이라고 한다. '아는 만큼 행동하고, 사상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의무로 받아들이는 것'은 프랑스에서는 자연스런 지성적 분위기이다. 특히 지성과 인론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지식인들이 인론을 사회적 공기(公器), 공론의 장(場)으로 여겨 인론 활동을 사회 참여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 때문이다.

철학의 대중화 - 장영지 : 인간존재에 관한 철학적 소고 ■ 사르트르 : 실존과 자유

동하는 지성인, 하물며 높고 멀리 있는 이들이 아닌 나와 같은 대학생이기에 그 앞에서 나는 많이, 정말 많이 부끄러웠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지식인이 아니라, 사회를 더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성인들이 필요한 게 아닐까. 우리에게 행동하는 지성인이 필요하다. 결국 아직 우리는 상식이 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런 목소리를 낼 용기를 가진다면 이제는 상식이 통하는 시대에 살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가.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사르트르의 철학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가 말하는 자유는 무엇이며, 또 그로부터 오는 불안과 책임, 타인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무한한 자유를 부여 받은 이상 자신의 인생에 절대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자발적인 구속을 감내해야 한다면,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주장했던 그의 철학을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사르트르는 <존재와 무>에서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자유라는 용어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제약이다. 제2차 세계대전당시에 포로수용소 생활을 경험했던 사르트르에게 있어 인간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점이 체험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자유를 갖지 않는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존재와 무>에서는 '나는 나의 본질을 넘어서, 나의 충동과 나의 행위의 동기를 넘어서 영원히 실존하도록 선고되었다. 나는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라고 말하며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에서는 '물론 인간의 정의로서의 자유는 타인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한 앙가주망(사회참여)이 생기자마자 나는 나의 자유와 동시에 타인의 자유를 원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내가 또한 타인의 자유를 목적으로 삼아야만 나의 자유를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존재와 무>에서 인간이 실존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서의 자유의 특성을 언급하는데 여기에서 자유는 인간의 행위를 위한 필연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에 근간을 둔 인간의 행위는 삶의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들을 임의대로 선택할

■ 철학의 대중화 - 장영지 : 인간존재에 대한 철학적 소고 사르트르 : 실존과 자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에서 야기된 선택은 반드시 책임을 전제로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선택하는 인간은 자신의 선택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책임 없이는 선택은 결코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또한 인간은 자신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에 자신의 자유를 상실 할 수도 있다. 자유를 상실하게 되면 인간은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존재, 즉 하나의 사물로 전락하게 되는데 그에 있어서 자유의 상실은 곧 인간의 사물화(=일상적인 인간)를 의미한다.

II. 본론

A. 실존주의

A-1. 무신론적 실존주의

=> 19세기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로부터 시작해 '신은 죽었다'고 외친 니체와 '현상학'의 창시자 후설, 그리고 20세기 '존재론'의 하이데거로 이어진 철학의 흐름을 실존주의[existentialisme]라 부른다. 이들은 사변적인 형이상학이나, 모든 것을 과학의 잣대로 규정하려 한 실증주의를 비판하고 '고독한 인간의 내면'과 '삶의 태도'에 집중했다. 개별자의 일반적인 본성이 '본질'이라면, '실존'이란 개별자가 그 자체로 '있음'을 뜻한다. 나무가 그와 같은 형태인 것은 나무의 본질이지만, 나무가 현실에 '있다'는 사실 자체는 실존인 것이다. 권위, 명예, 부, 자아성취, 인정 등 모든 외적인 경험을 없앤 다음 최후까지 남아 있는 분해할 수 없는 그 무엇에서 우리는 '실존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계보를 이어 20세기 실존철학, 그중에서도 무신론적 실존철학을 이끌었던 인물은 사르트르다. 철학자인 동시에 평론, 극, 소설을 활발히 발표했던 문학가인 그는, 언제나 '인간'을 최고의 화두로 삼았다. 그에게 있어 '보편적 원인'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며, '우연'이야말로 본질적이다. 이 불안한

철학의 대중화 - 장영지 : 인간존재에 관한 철학적 소고 ■ 사르트르 : 실존과 자유

세계에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던져진 인간은, 삶의 매 순간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스스로 존재 가치를 결정해 나가는 유일한 주체이다.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오히려 현실에 안주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실존의 생생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 무한한 자유를 부여 받은 이상, 자신의 인생에 절대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사르트르는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자발적인 구속을 감내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주장했다.

A-2. 존재

=> 인간의 의식과 밖에 있는 대상의 관계에 대해 후설은 그의 현상학에서 '대상이란 항상 의식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르트르는 대상이 우리의 의식 밖에 '실재'한다고 주장한다. 존재는 인간에 의해 의식되건 않건 간에, 그 자체로서 본래부터 존재한다. 사르트르는 이것을 <즉자>²⁾라고 불렀다. 반면에 의식은 항상 다른 존재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존재한다. 의식 자체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그 무엇에 관한 의식으로서만 존재한다. 의식의 이런 성격을 사르트르는 <대자>³⁾라고 불렀다. 의식과는 반대로 그 자체로 있는 존재<즉자>는 타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타자에 의해서 창조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존재는 필연이 아니라 우연이다. 그것은 어떤 원인의 결과로 있다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존재한다거나 하지 않고 그저 있을 뿐이다. 그 이전까지 존재라는 개념이 철학에서 가지던 위상과는 달리 사르트르에게 존재는 신적인 것도, 더없이 높은 초월자도 아닌 '그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 인간은 즉자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자로 있으면서 동시에 즉자로 되기를 원한다. 대

2) 사물의 직접태도로서 다른 것과의 연관에 의해 규정되는 단계까지 도달하지 않은 미발전의 상이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사용한 철학용어이다.

3) 즉자에서 발전한 단계로 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대상화하고 바라보는 존재를 말한다.

■ 철학의 대중화 - 장영지 : 인간존재에 대한 철학적 소고 사르트르 : 실존과 자유

자의 특권을 갖고 있으면서, 즉자의 충만도 누리자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이 즉자이면서 동시에 대자인 즉자대자란 바랄 수 있는 것이지만 실현하기는 어렵다.⁴⁾

A-3. 기투

=> 하이데거가 볼 때 인간의 존재에는 아무런 필연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팽개쳐진 존재'라는 말로 인간존재를 표현했다. 인간은 이 우주공간에 그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우연하게 내팽개쳐진 존재라는 것이다. 사르트르의 무신론적 세계관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은 삶 가운데로 던져진 상태(기투) 그대로 자신의 삶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 무5)에 내던져진 상태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정해진 삶은 존재하지 않으며 매순간 인간 자신이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고 본다. 아무런 접테기도 씌워지지 않은 벌거벗은 상태 그대로의 인간의 모습, 가장 험박은 상태로서의 인간의 모습에 관심을 기울인다. 역사나 이데올로기나 어떤 체제에 의해 굴레가 덧씌워지지 않은 가장 원초적인 모습의 인간은 아무런 존재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존립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 우주공간에 아무런 이유 없이 기투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규정될 수 없는 존재이며, 인간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특정한 성격이 부가될 수 없는 것이다. 즉 인간은 아무런 합목적적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본질이라는 용어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점은 사르트르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고 말할 때 잘 나타난다.

B. 실존의 본질과 인간존재

4) 김성률, 『서양철학사 산책』, 평단, 2009, p.318~p.325

5) 무(Nichts) - 인간의 행동은 항상 지금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목적을 갖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 인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전개할 수 있다.

B-1.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 키에르케고르는 이전의 철학이 세계의 근거나 보편적인 원리라고 생각하는 본질이라는 용어에 매달리는 것을 비판했는데 그에 따르면 본질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는 여기서 객관적인진리 또는 보편타당한 진리의 존재가능성을 거부하고 주관적인 진리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 진리는 그것이 존재한다면 주관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주관적 진리는 객관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러한 입장에서 진리의 문제는 개개인의 주어진 삶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는 여기서 개인의 실존을 철학의 주제로 삼았다. 그에게 있어 실존은 인간이 본래적인 자아를 찾아가는 길인데, 이것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마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결단하며 단독자로서 살아가는 역동적인 태도⁶⁾를 말한다. 하이데거에게는 인간의 존재가 바로 실존이다. 실존은 현존재로서의 인간이 본래성과 비본래성의 갈등을 극복하고자 자신의 존재로 향해 가는 과정이다.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현존재의 실존은 현존재만의 실존 작업이 아니라 존재의 빛⁷⁾이 현존재에게 다가올 때 가능한 것이다. 사르트르에게 있어 인간의 실존은 다른 어떤 존재나 제약을 갖고 있지 않다. 인간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나 파악은 인간의 구체적인 실존이 있고 난 다음에야 가능한 것이다. 즉, 사람은 먼저 있어서 세상에서 존재하고 세상에 나타나며, 그 다음에 정의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존재 이후에 스스로를 위해서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 이외엔 아무 것도 아니다. 이것은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넘어서서 지금 현재 주어진 삶을 자신에 의해서 선택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

6) (미적인 단계 → 도덕적인 단계 → 종교적인 단계 → 신과의 올바른 만남)
 실존은 신과의 올바른 만남을 통해서 도달될 수 있는 것이다. ⇨ 신의 존재 요청

7) 존재의 빛 = 모든 존재자를 가능하게 하는 존재

■ 철학의 대중화 - 장영지 : 인간존재에 대한 철학적 소고 사르트르 : 실존과 자유

서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르트르는 종이칼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즉 종이칼은 그 용도를 미리 염두에 두고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존재에 앞서 본질이 주어진다. 제작된 물건들은 모두 본질이 존재에 앞서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무엇에 쓰려고 만든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본질은 백지 상태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는 것이다.

B-2. 불안

=> 인간존재는 계속해서 자신의 의식의 지향성 구조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한다.⁸⁾ 그렇지 않으면 이 인간존재는 살아있어도 진정으로 살아 있다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존재는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혼자 감내해야 하는데서 오는 엄청난 불안(angouisse)을 겪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간존재가 자신을 미래를 향해 투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유 앞에서, 자신의 가능성 앞에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앞에서, 결국 무 앞에서 느끼는 불안이다. 사르트르의 사유체계에서 인간존재는 자신의 미래를 향해 투기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가치체계에도 의지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르트르는 신의 부재를 가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인간존재는 자신의 본질(essence)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자기 투기, 곧 창조를 통해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런데 미래를 향한 이 투기와 창조, 이것이 바로 실존(existence)⁹⁾이다. 즉 인간은 태어날 때 신으로부터 아무런 본질을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실존을 통해 자신에게 결여된 본질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사르트르의 생각이다. '여기에서 실존이 본질보다 선행한다는 것은

8) 변광배, 『존재와 무-자유를 향한 실존적 탐색』, 살림출판사, 2005, p.167~p.173

9) 실존이라는 말은 'ex-sister', 즉 '거기에서 벗어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에서 파생되었다.

철학의 대중화 - 장영지 : 인간존재에 관한 철학적 소고 | 사르트르 : 실존과 자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이 먼저 있어 세상에 존재하고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는 그 다음에 정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존주의가 생각하는 인간, 만약 그 인간이 정의될 수 없다면, 그것은 그 인간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나중에서야 비로소 무엇이 되며, 그래서 그는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존재한 후에 스스로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를 만들어 가는 것 이외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실존주의 제1원리이다. 사람들은 또한 이것을 주체성이라고 부른다.¹⁰⁾

선택으로부터 오는 괴로움과 두려움으로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거부 욕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는 무 앞에서의 불안 때문이다. 선택이 전의 나의본질은 존재하지 않는 무의 상태인데, 선택에 따라 무가 어떤 방향으로 드러날지에 대해 개별자는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즉 이 불안이라는 것은 구체적 대상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무 자체가 유발하는 불안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존의 구조 자체를 형성하는 불안이다. 불안 속에서 개별자는 다시 자기 자신을 향해 되던져진다. 이때 개별자는 자기 자신의 자유를 의식하게 된다. 자유는 불안 속에서 인식되는 것이고 동시에 불안은 자유의 의식이다. 자유와 마찬가지로 불안역시 상황 속에서 구현된다. 불안은 그때그때의 선택과 결단 속에서 자기 자신의 자유를 떠맡고 이를 통해 다시 자신에게로 던져짐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불안은 선택과 그에 따르는 책임의식을 보여주게 된다. 선택, 기투에 따르는 책임은 그것을 실현한 개별자만이 지게 된다. 그 기투는 개별자의 의지에만 유일하게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불안이란 책임이라는 조건하에서 나오는 것이다.

B-3. 타인

=> 타인의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세계에 속해 있는 한 필연적인 것

10) 장 폴 사르트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방곤 옮김, 고려원, 1992, p427~p.428

■ 철학의 대중화 - 장영지 : 인간존재에 대한 철학적 소고 사르트르 : 실존과 자유

이다. 그에 있어서 타인의 시선이란 개별적인 바라봄이나 시각 이상의 것을 담고 있다. 시선은 나를 거기에 붙잡아두는 것이며 타인에 대한 의식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존재와 무>에서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쳐다볼 때 느끼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타자의 존재를 의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타자의 의식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입장을 벗어나서 타자의 존재를 자각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런 타자의 출현은 '나의 우주 속에 발생한 하나의 특수한 작은균열'이다. 그리고 이 균열을 통해 나의 세계에 속해 있었던 모든 사물존재들은 이 인간을 향해 끊임없이 흘러 나간다. 모든 것은 마치 나의 세계에, 내가 중심이 되어 형성된 세계의 한복판에 하나의 구멍¹¹⁾이 뚫리고, 이 구멍을 통해서 나의 세계를 구성하던 모든 존재들이 끊임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흘러나가는 것처럼 진행된다. 사르트르는 이 현상을 타자의 출현으로 인한 나의 세계의 '내출혈'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나의 세계, 내가 중심이 되어 형성된 세계는 이 인간의 출현으로 인해 해체되고 와해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내가 이 인간을 그저 하나의 객체로 파악한다면 나의 세계 속에서 발생한 내출혈, 즉 나의 세계의 해체와 와해는 다시 고정되어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 여기서 타자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선택이 타자의 존재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²⁾ 이런 점에서 개인의 실존과 자유를 위한 선택은 항상 타자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실존을 위한 선택에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고 보는 것은 인간의 실존이 타자의 실존을 거부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나의 실존은 타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의 실존을 무시하는 등 타자의 실존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11) =trou, 의식을 가진 인간존재, 곧 대자존재의 출현이 이 세계에 난 구멍

12) 변광배, 『존재와 무-자유를 향한 실존적 탐색』, 살림출판사, 2005, p.185

III. 결론

A. 나오는 말

=> 그의 사상은 인간이 의식적 존재로서 스스로 새롭게 자신을 만들어 갈 자유로운 존재임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해주었다. 때문에 이후에도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철학뿐만 아니라 문학과 연극, 영화라는 광범위한 문화 영역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어떤 원칙이나 권위 혹은 일반적 원리를 부인할 수는 있었지만, 개인이 새로운 원리를 선택하고 결단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부분을 제시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가 말했던 자유는 억압에 대한 해방의 표현이고 적극적인 자기 선택의 자유이긴 했지만 궁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결단에서 망설일 때 '네가 선택하라'는 답 이외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허무주의는 인간의 이성이 하나의 도덕 가치를 정당화시키는 힘이 없다고 보는 견해에 닿아있는데,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적 자유가 이러한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의 세계에 던져진 인간에게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 그러한 신이 부재한 우연의 세계에서 인간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똑같은 운명을 짊어진 인간들 사이에서 우리 모두가 완전한 자유를 소유하고 있고 각자가 유일한 도덕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편타당한 윤리적 삶의 근거를 제공해 줄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앙가제라는 것이다. 여기서는 자신 속에 파묻히지 않고, 사회에 참가하거나 참가시킴을 말한다. 이것의 명사형이 앙가주망이다. 나의 행위는 나의 실존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앙가제하는 것이다. 즉, 스스로를 선택함으로써 '인간'의 개념을 창조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내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뿐 아니라, 전 인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자아와 동시에 전 인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 때, 사람은 심각한 책임의식을 갖게 되고,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과연 나는 인류가 나의 행위의 본을 따는 그러한 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 사람인가?' 하고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 철학의 대중화 - 장영지 : 인간존재에 대한 철학적 소고 사르트르 : 실존과 자유

이런 질문을 하지 않거나 불안하지 않다면 그는 불성직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 때문이다.

보편적 이성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모두가 비슷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 고교 졸업하고 좋은 대학에 가게 된다. 이것은 더 나은 삶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며 더 좋은 대학은 더 나은 직장을 약속해주며, 더 나은 직장은 더 나은 배우자를 약속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보편적 이성은 우리 인간의 삶에서 지켜야 할 하나의 틀을 만들며 그것을 강요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의 말을 들어보자면, 그들은 그러한 보편적 이성애 앞서서 나의 개별적 존재가 있다는 주장을 하며, 이러한 개별적 주체로서 스스로 매순간 선택하며 능동적 참여를 하는 것, 그리고 타인을 원인으로 한 선택이 아닌 내 스스로를 원인으로 한 선택을 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던가,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라는 그의 유명한 명제는 인간이란 자유롭게 자신을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이서규, 『현대철학의 이해』, 건국대학교출판부, 2003
변광배, 『장 폴 사르트르의 사상과 문학』
변광배, 『존재와 무-자유를 향한 실존적 탐색』, 살림출판사, 2005.
강성위, 『자유라는 이름으로 신을 부정하는 Sartre』
장 폴 사르트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방곤 옮김, 고려원, 1992.
김성률, 『서양철학사 산책』, 평단, 2009.
브라이언 매기, 『철학의 역사』, 시공사, 2002
다카이네 이치구, 『생각의 역사』, 이론헌, 2005.